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 · 강원권

일시 | 2024. 11. 12.(화) 14:00 ~ 17:00

장소 | 경북대학교 미래창직관 201호

주최  교육부 주관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교원대학교

후원  경북대학교  동신대학교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 프로그램

▶▶ 일 시 : 2024. 11. 12.(화) 14:00 ~ 17: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미래창직관 201호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 후 원 : 경북대학교, 동신대학교

▶▶ 진행순서

사회: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일시	세부일정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말씀 축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4:20~15:20	1부 주제발표 발표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고영미(순천향대학교) 발표2.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김대욱(경상국립대학교) 발표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발표4. (가칭) 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김언경(한국교원대학교) 자격 취득 과정 구성
15:20~15:30	휴식
15:30~16:30	2부 지정 토론 좌장: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양진희(한국교통대학교) 한국아동학회 이보람(대구대학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손옥경(진영유치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김빛날(오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 김정화(삼성어린이집)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김언남(뷰엔아이어린이집) 유보통합학부모연대 정지현(학부모대표)
16:30~17:00	자유 토론
17:00	폐회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개편’ 주제로 열리는 권역별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UN 아동권리 협약, OECD ECEC 등 국제 사회에서도 모든 영유아에게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영유아의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고, 지난 6월 27일부터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고 통합하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교원이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교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 직무역량을 고려해 영유아의 발달적·경험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유아교육 및 보육학계, 교원양성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시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토론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 축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교원 자격·양성 체제에 대한 다양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 오늘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4년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듯이, 그동안 여러 연구팀의 고민들이 토론회를 통해 나누며 교원의 전문성 상향평준화라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응하는 방안에 다가갈 희망합니다.

OECD 교육 2030과 UNESCO의 2050 등 세계는 미래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원이 가진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교원자격과 양성체제는 미래를 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다루어질 영유아교사 양성전공 교육과정, 양성학과, 현직교사의 통합 자격 과정,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모두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결과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연구를 진행해 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님과 연구진, 그리고 고영미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아동학회 연구진, 한국교원대학교 김언경 교수님과 연구진 등 연구를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구진을 대표해서 발표를 맡아주신 고영미 교수님, 김대욱 교수님, 김유미 교수님, 김언경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시는 조부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발표만큼이나 토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과 학회, 단체를 대표해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연구팀이 제안한 개편 방안의 실효성은 물론 진정 미래 교원과 현직 교원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편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복을 위한 방안인지 논의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가 미래의 영유아교사와 교사들이 만나게 될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에 성큼 다가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 목 차

주제발표

발표 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1
발표 2.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17
발표 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27
발표 4. (가칭) 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35

지정토론

양진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47
이보람 (대구대학교, 한국아동학회)	51
손옥경 (진영유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5
김빛날 (오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61
김정화 (삼성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65
김언남 (뷰엔아이어린이집,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69
정지현 (학부모대표, 유보통합학부모연대)	71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발표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고영미(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동연구원: 이미정(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신혜원(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임수진(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지영(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목차

0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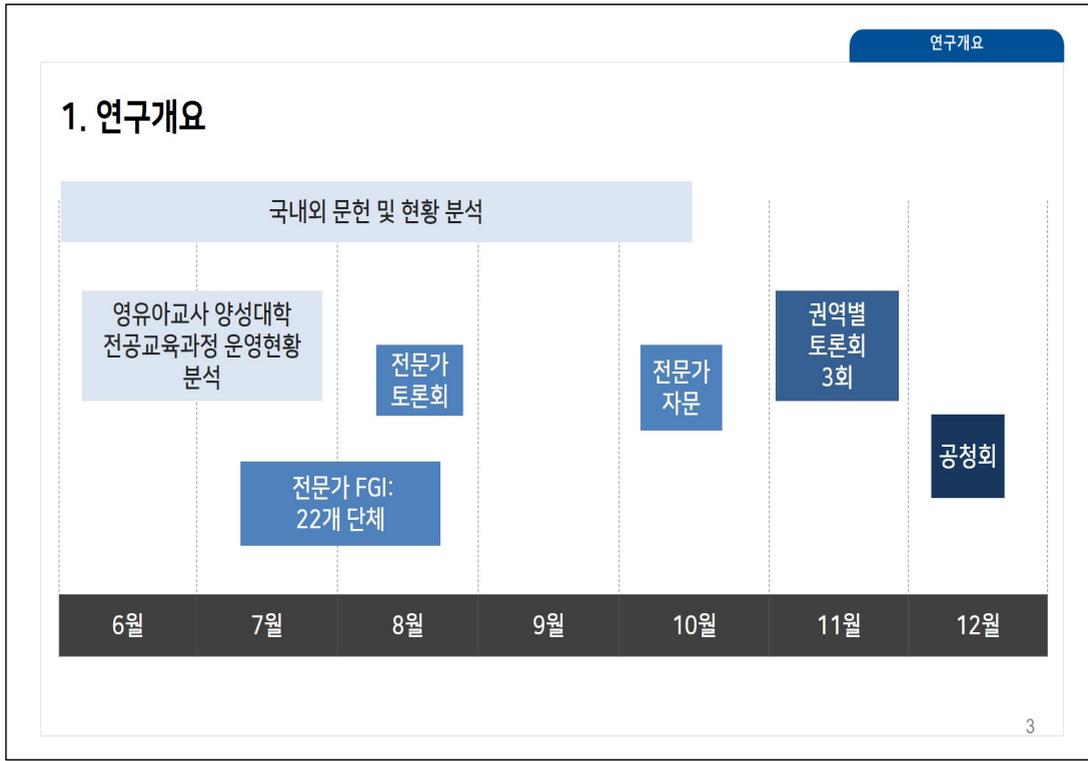
연구주제
연구진행 과정

0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0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04 시사점 및 향후과제



연구개요

◆ 영유아교원 양성대학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기본이수과목, 기타전공과목, 소단위 학위과정 분석

구분	분석대학 수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계
유아교육과	71	79	150
아동학과 및 보육학과	18	14	32
계	89	93	182

◆ 전문가 FGI: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22개 학회 15개, 교원단체 4개, 양성대학 협의회 3개 단체 대상
일시: 2024. 7. 22. - 8. 23
실시 횟수: 총 6회

◆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4. 8. 13. (화) 10:00-13:00
참석자: 토론회 8명(대학교수 및 현장전문가), 교육부 및 유관연구 참석자 7명, 연구진 6명

◆ 전문가 자문
일시: 2024. 10. 11. (금) 15:00-20:30
참석자: 전체 자문 7명(교수 2명, 장학관 1명, 보육행정전문가 1명, 연구원 1명, 현장전문가 2명)
교수 및 현장전문가 중심 영역별 자문(1영역 자문 6명, 2영역 자문 6명, 3영역 자문 7명)

4

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	--------------------------------------	---	---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영유아정교사(0~5세) 2^년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2. 영유아교사 통합자격과 전공 교육과정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 1 — 아동 이익 최우선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7; Shonkoff 외, 2021

 - 0-5세 시기의 발달은 연속적이며 영아기와 유아기의 신경 발달이 유기적으로 연결
 - 영아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교육적 자극이 중요하며, 이 때 경험이 이후 학습·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
 - "돌봄(care)"을 생리적 보호(예: 식사, 수면, 안전)로 한정하기보다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윤리적 돌봄/ 영유아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은 구분되지 않음)
 -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일관성 있는 경험은 유아기에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기에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가 충족되는데 기여하여 전이(transition) 측면에서 중요
- 2 — 교육제공의 형평성 Heckman 외 2013; UNICEF, 2019

 -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합된 시스템과 일관된 교사 자격체계는 이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
 - '모든' 교육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 모두가 질 높은 ECEC에 접근 가능 → 교육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3 —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과 전문화 EuropeanCommission, 2014; OECD, 2019; Urban, Vandebroek 외, 2012

-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시기를 연결하는 교육적 지원 제공 및 연속적 발달 촉진
- 교사 전문성은 개별 교사의 역량 개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
- 동일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기준의 준수는 이 분야의 전문화 및 지속적인 전문적 개발에 긍정적
-> 교사의 전문성 및 처우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함
- 최근 국내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유보통합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에 대한 통합을 우선 순위로 생각함

2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22개 단체 중 18개 단체가 영유아정교사(0-5세)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지지함

-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임
- '0-5세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0-5세를 대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1) 영유아교사 통합자격의 기준

"0-2세 영아는 돌봄 중심 보육, 3-5세 유아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바라보기

연령 기준으로 교사 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돌봄과 교육이 서로 얽혀 작용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음
영유아 시기의 연속적인 발달과 경험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통합교사 자격은 0-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 생애 기초 교육의 관점에서 통합된 시스템 및 동일한 양성 요소와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 구분이 없는 단일화된 양성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영유아교사의 핵심 역량에 기초한 전공 교육과정은 예비교사가 지식 학습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영유아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이란 단순한 지식과 기능 이상으로, 특정 맥락에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끌어내고 동원하여 여러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OECD, 2005)
 - 여러 도구들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개념을 수용하면서 역량 개념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정의함(OECD, 2018)
 - 지식(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능(인지적·메타인지적 기능, 사회적·정서적 기능, 신체적·실천적 기능), 태도와 가치(개인적 태도와 가치, 지역적 태도와 가치, 사회적 태도와 가치, 글로벌적 태도와 가치)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23년 영유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역량모델(교직 인성, 교육과정 운영, 영유아 이해 및 지원, 교육공동체협력, 디지털 소양, 현장연구 및 전문성)'과 같이 검증된 기준안에 대해 전문가협의회, 공개토론회, 자문회의를 통해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음

<핵심 역량(안)의 예시>

영역	내용
자기 관리역량	교직에 대한 신념, 민주시민 기초소양, 교직 윤리의식 실천, 자기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이해 및 실천역량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 교과내용의 이해 및 융합, 양질의 환경구성, 학급운영
학습자 이해 및 지원역량	영유아 인지·정서·신체 등 보편적 발달 이해, 영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평가와 성장 지원, 상호작용, 긍정행동지도
관계역량	교육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 학부모·지역사회·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양육자 협력 및 상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생태·다양성 존중,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 디지털 놀이, 디지털 윤리 준수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23년 영유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역량모델(교직 인식, 교육과정 운영, 영유아 이해 및 지원, 교육공동체협력, 디지털 소양, 현장연구 및 전문성)' 과 같이 검증된 기존안에 대해 전문가협의회, 공개토론회, 자문회의를 통해 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음

<핵심 역량(안)의 예시>

영역	내용
자기 관리 역량	교직에 대한 신념, 민주시민 기초 소양, 교직 윤리의식 실천, 자기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이해 및 실천 역량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 교과 내용의 이해 및 융합, 양질의 환경구성, 학급운영
학습자 이해 및 지원역량	영유아 인지·정서·신체 등 보편적 발달 이해, 영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평가와 성장 지원, 상호작용, 긍정행동지도
관계역량	교육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 학부모·지역사회·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양육자 협력 및 상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생태·다양성 존중, 지역사회의 특성 반영, 디지털 놀이, 디지털 윤리 준수

2)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유치원 교사 양성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고려한 영유아교사 전공 교육과정

한국의 유·초·중등교원 자격증은 무시험검정 기준에 의해 수여되며,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은 세부 사항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 에 기초함

- 제1조(목적)에서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규정됨을 명시함
-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는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에 따라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을 명시하며,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함

구분	전공과목	교직과목
이수학점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주요내용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별표							
전공 이수 과목	<p>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p> <table border="1"> <tr> <td>유치원 정교사 (2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td> </tr> </table>	유치원 정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정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p>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p> <p>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p> <p>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p>	<p>[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p> <p>4. 유치원 교사(Kindergarten Teacher),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종별</th> <th>관련학과 또는 학부</th> <th>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치원 정교사 (2급)</td> <td>유아교육학</td> <td>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td> </tr> <tr> <td>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td> <td>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외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td> </tr> </tbody> </table>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외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외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별표								
교직 이수 과목	<p>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최저이수기준</th> </tr> <tr> <th>정교사 2급 기준</th> </tr> <tr> <td rowspan="2">교직 이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td> </tr> <tr> <td>교육 실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td> </tr> </table>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 2급 기준	교직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 2급 기준										
교직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과목 명칭과 교육 과정 운영	<p>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p>									

- 유치원 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과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비교하면, 최소 취득학점은 유치원 교사 50학점 이상, 보육교사 51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할 전공교과목 수가 유사함
-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및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이수 체계를 보면, **교과목 표시 방법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의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교과목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양성과정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교사 인성: 필수 2과목(6학점)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재연구및지도법, 교과별교수법, 교과별교육과정, 교과별평가방법론 등	보육 지식과 기술: 13과목(39학점) 이상 필수 9과목 (27학점)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 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어린이집운영관리,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50학점 이상(10과목 이상) + 교직 22학점= 총 72학점	보육 실무: 필수 2과목(6학점)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대학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도록 운영하는 학과는 대체로 2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통 교과목을 중심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4년제 71개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교사론	아동권리및복지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보육교사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및복지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안전관리	아동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운영관리
개목 수	78(10)	71	80(11)	77(5)	79(7)	76(5)	71	72(1)	68	68	70(1)	71(1)	61	56	41	65	47
유치원 교사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보육교사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개목 수	56	69(1)	70	70	30	7	14	48	1	28	1	1	3	1	7	0	
유아교육과 2-3년제 79개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교사론	아동권리및복지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보육교사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및복지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안전관리	아동	어린이집운영관리	어린이집운영관리
개목 수	87(8)	75	80(4)	82(4)	85(6)	77(2)	79	79(1)	71	72(1)	80(3)	77(1)	65(1)	73(2)	32	71	50
유치원 교사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유아사회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보육교사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개목 수	64(2)	72(1)	78	71	21	5	4	40	0	29	3	2	5	1	4	1	

[발표]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방안

통합자격과 양성 전공

보육학과 4년제 18계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 교사론	아동 권리와 복지	유아관련법 학습	유아 교육론	유아 교육과정	영유아 발달과 교육	유아 놀이지도	유아 언어교육	유아 과학교육	유아 수학교육	유아 미술교육	유아 음악교육	유아 동성교육	유아 안전교육	아동생활 지도	영유아 교수 방법론	유아교육 기원 운영관리
보육 교사	보육 교사 인성론		아동관련법 행동연구	보육학 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 과학지도	아동 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과목 수	17	18	18(1)	17(5)	14(1)	18(1)	17	17	14	13	14	12	5	15	6	16	10
유치원 교사	유아 건강교육	유아사회 교육	부모교육	아동 문학교육	아동 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보육 정책론	정신 건강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간호학	아동 영양학	가족 복지론	가족 관계론	지역사회 복지론	
보육 교사	아동 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 지도	부모 교육론														
과목 수	6	11(1)	12	10	15	2	7	12	1	15	8	0	0	7	4	4	

보육학과 2-3년제 14계 대학																	
자격		전공과목명															
유치원 교사	유아 교사론	아동 권리와 복지	유아관련법 학습	유아 교육론	유아 교육과정	영유아 발달과 교육	유아 놀이지도	유아 언어교육	유아 과학교육	유아 수학교육	유아 미술교육	유아 음악교육	유아 동성교육	유아 안전교육	아동생활 지도	영유아 교수 방법론	유아교육 기원 운영관리
보육 교사	보육 교사 인성론		아동관련법 행동연구	보육학 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 과학지도	아동 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과목 수	14	13	14	13	13	14	13	13	7	10	12	12	3	12	4	14	5
유치원 교사	유아 건강교육	유아사회 교육	부모교육	아동 문학교육	아동 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보육 정책론	정신 건강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간호학	아동 영양학	가족 복지론	가족 관계론	지역사회 복지론	
보육 교사	아동 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 지도	부모 교육론														
과목 수	10	5	11	7	8	2	9	8	1	4	3	0	1	3	1	1	

17

통합자격과 양성 전공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대학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중 기타 교과목을 유목화 한 결과, 교사 역량, 교과, 환경·생태·수, 철학 및 사상사, 놀이, 발달, 통합교육, 에듀테크 및 디지털교육, 교수법 및 교수 매체, 영유아행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연구 및 평가, 현장 이해, 부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교과목명
교사 역량 관련	윤리
	창의성
	테크놀러지 및 미디어
	미래역량
	기타
	유아 문학
	유아 신체교육
	유아극놀이
	유아 인성교육
	유아 창의성교육
교과 관련	유아
	유아 사회정서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유아 건강영양
	유아 조형/창조
	환경교육
	생태교육
	유아 사회연속
	유아 직업교육
	유아 예술교육

구분	교과목명
철학 및 사상사 관련	유아교육사상(사), 유아교육철학, 아동교육철학, 아동교육철학및유아교육사, 유아교육철학사조
놀이 관련	놀이중심유아교육, 놀이이해및실천, 놀이중심유아교육프로그램제시나, 놀이와창의성, 놀이중심유아교육, 영유아놀이이해및실천, 영유아놀이실천, 아동놀이지도및실습
발달 관련	아동인지발달론, 인지발달과유아교육, 인지이론과교육, 영유아발달연구, 영아발달연구
통합교육 관련	통합교육론, 유아통합교육의이해
에듀테크 및 디지털 교육/매체 관련	에듀테크입문, 영유아교육과에듀테크, 실기반유아놀이, 디지털기반놀이세미나, 유아미디어콘텐츠디자인, 실용유아교육콘텐츠개발, VR/AR미디어콘텐츠개발, 유아교육콘텐츠개발, 아동콘텐츠및실습, 아동콘텐츠개발및AR/VR, 유아디지털교육, 유아교육과인공지능, 디지털과유아교육, 디지털기반놀이세미나, 디지털놀이세미나, 유아컴퓨터놀이교육, 아동소프트웨어교육, 유아교육과메타버스, 유아교육과VR/AR, 유아VR/AR미디어통합교육론
교수법 및 교수체	멀티미디어활용교수법, 유아교과별교수법, 유치원교과연구지도법, 멀티미디어와유아교과, 유아교수체계적및활용, 유아놀이매체
영유아행동지도	영유아행동지도, 유아행동분석및행동개입,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유아문제행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유아교육프로그램이론과실제연구, 영아프로그램이론과실제, 영아보육, 유아교육현장프로그램, 본태소리교육, 본태소리지도, 개별화교육/프로그램(계획, 아동학의통계학적기초, 연구방법및통계, 유아교육통계, 현장실무통계, 질적연구, 유아교과평가방법론
연구 및 평가 관련	유아교육프로그램평가, 유아교육프로그램평가, 유아교육프로그램평가방법론
현장 이해 관련	현장체험, 유치원현장교육의이해, 학교현장실습/사례연구
부모 관련	에비부모를위한영유아교육의이해

18

유치원 교사 양성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고려한 영유아교사 전공 교육과정

- 기존 연구는 현행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핵심역량과 연계된 편성, 교직과 전공의 연계 및 중복 교과목 조정,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과목 및 교과영역의 설계,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유·보·초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국외 사례에서 영유아교육 담당을 교육부로 이관한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의 일원화에 기초한 높은 질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아의 행복과 발달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의 연계 강화 노력이 아동발달의 장기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제시함
- 최근 국가교육책임제(교육부, 2022)와 이음교육 강조 등은 0~18세까지 배움의 연속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기초함. 특히 통합교사는 '0-5세 영유아학교' 체제에 기초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교육체제 구축에 따라 현행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기준에 기초해 전공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함

선행연구 및 양성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결과에 기초해 FGI,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논의된 전공교육과정 개편 관련 다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기본이수학점 과목 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교사양성체계의 기본(필수) 교과목 구성이 유사하므로, 영유아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점은 교육 부에서 관리하는 교원 자격 부여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기본이수학점 및 과목수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표시방식 역시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방식이 더 적합함 • 특히 기본이수과목 수는 변화하는 대학 환경을 고려해 양성대학이 효율성·유연성을 가지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상향 조정이 적절함
교과목명과 교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개발 및 교과목명은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과 지속성,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 기존 교사양성체계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편보다 기존에 제시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아와 유아를 위한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과목명은 영유아사회교육, 영유아놀이지도 등으로 표시하며, 현재 기본이수교과목 내에서 영아와 유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함 • 다만 통합교사 양성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영아이해 관련 교과목을 개발·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교과교육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교급과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 교과목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유보통합의 본질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교육책임제에 기초함에 비추어,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개편(안)'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같이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이 과정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양성과정과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기본이수과목 유지
21학점(7과목) 이상 유지

- 유치원 교사 전공 교육과정(기본이수교과)과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필수교과는 대부분 공통임
- 대학의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학교 교사'로서의 자격체계 일관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에서 요구하는 기준 적용을 제안함

영유아를 포괄하는 형태로 과목명 변경
<영유아+교과목명> 형태로 변경 (예: 영유아사회교육)

- 영유아 발달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함
- 기본이수과목명은 현행 교과목명을 유지하되 유보통합의 취지를 고려해 <영유아+교과목명>으로 할 것을 제안함

3.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유보통합의 본질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교육책임제에 기초함에 비추어,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 개편(안)'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같이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이 과정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양성과정과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영아 이해를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 제안
예: 영유아발달과교육 1, 2/ 영유아관찰및지원 1, 2

- FGI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강조된 통합기관에서의 '영아 이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교과를 개발해 기본이수과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기본이수교과인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등을 기초로 영유아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과목 제시

교과교육학 영역의 조정
예: 통합교육의 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2

- 영유아교육의 특수성인 '통합교육'을 반영해 교과목을 개발하고, 주요 내용을 교수요목에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교과 교육론",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을 <통합교육의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2>와 같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개편(안): 교과목 구성의 '예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비고
영유아교육론,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언어교육, 영유아사회교육, 영유아과학교육, 영유아수학교육, 영유아미술교육, 영유아음악교육, 영유아교사론, 영유아동작교육, 영유아놀이지도, 영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영유아권리와 복지, 영유아건강교육, 부모 교육, 영유아안전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1, 영유아발달과교육 2, 영유아관찰및실습 1, 영유아관찰및실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 구분 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 <영유아+교과목>으로 제안 영아이해를 위한 교과목 추가를 위해 기존 교과목을 변경 제시하는 안을 제안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통합교육의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 영유아교수학습방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을 반영해 교과목을 개발하고, 주요 내용을 교수요목에 제시할 것을 제안
기타 교과목(21학점) 이상	
양성대학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대학 자율 편성 운영 대학 자율로 소단위 학위과정(MD) 편성 가능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1 양성기관 자율성에 기초한 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 제시 및 지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대학 학과(2-4년제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타 교과목으로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현황을 확인함
영유아 교사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해 교사 양성대학의 자율적·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통합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현직교사 통합교사 자격취득 과정과의 연계 필요
현직교원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함
생애주기에 기초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연계성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충분한 연구 필요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등과 연계되며 영유아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양성기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영유아 교육환경 및 유보통합을 고려한 교원양성평가 지표 개발이 요구됨

4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통합교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학부터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사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5 장기적 관점에서 교과목명에 대한 충분한 논의·합의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목명은 예시이므로 유보통합 및 영유아 통합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교과목 및 교과목명이 적합한지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함

25

감사합니다

26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발표2]



2024. 영유아교원 양성과정 개선 권역별 토론회 발제 원고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김대욱(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소정(육아정책연구소)

CONTENTS

- 01 학과 명칭
- 02 수업연한
- 03 영유아교원 추계에 따른 증원
- 0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시 우려되는 점
-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01 학과 명칭

가. 통합학과 명칭: 영유아교육(학)과

1) 통합학과 명칭

사범대학 소속: 영유아교육과

사범계열 소속: 영유아교육학과

성격: 0~5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2) 통합학과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영유아교육(학)과는 모든 정원에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부여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3) 통합학과 전환 대상

현재 유아교육(학)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

가능한 최대한 영유아교육(학)과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독려

해당 학과 교원의 세부전공이 영유아교육 절반 이상(유아교육전공, 아동학전공 모두 해당) + 전환 희망하는 학과

01 학과 명칭

나. 전공 명칭: 영유아교직이수(아동관련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1) 영유아교직이수 운영 검토

아동관련학과에 영유아교직이수 운영

아동관련학과를 전공제 방식의 전공으로 운영

'아동관련전공' 과 '영유아교직이수' 로 운영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

2) 영유아교직이수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 부여 검토

영유아교직이수는 일부 정원에 통합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검토

7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부터 적정 규모 계속 관리

01 학과 명칭

다. 교육대학원 명칭

1)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영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는 영유아교육(학)과 소속 교원 or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소속 교원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2)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있을 때 영유아교육(학)과에서 교육대학원 전공 주임두고 운영
해당대학에 영유아교육(학)과 없을 때 전공 주임교수 최소 1명 확보 필수

02 수업연한

가.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1) 수업연한에 대한 부모 의견

부모들은 4년제 대학 교사양성 학과를 가장 선호함(77.1%/ 복수응답, N=1,000)

〈표 II-1-1〉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 교사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기관(복수응답)

단위: %, (명)

	4년제 대학 교사 양성 학과	전문대 교사 양성 학과	4년제/ 전문대 자격 취득 학점 이수	사이버 대학 교사 양성 학과	방송통 신대학 교사 양성 학과	온라인 학점은행 (평생교 육원 포함)	보육 교사 교육원	사례수
전체	77.1	42.9	18.3	7.7	11.1	5.5	8.3	(1000)
유치원부모	89.6	30.6	10.4	2.6	5.8	1.6	3.6	(500)
어린이집부모	64.6	55.2	26.2	12.8	16.4	9.4	13.0	(500)
영아 부모	67.5	52.4	21.8	11.5	13.9	8.3	9.1	(252)
유아 부모	80.3	39.7	17.1	6.4	10.2	4.5	8.0	(748)

출처: 김은설, 문무경, 구자연, 권정윤, 이미정, 박소영, 김수현(2023).

02 수업연한

가. 수업연한에 대한 의견

2) 수업연한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23년 7월 24일 10개 전문가 단체의 유아교육과 보육 교원 분야 전문가 의견 포럼 개최

자격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 4년으로 제안한 단체가 다수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에서 4년제 학과개편 방안 동의

전체적으로, 교사 양성에서 4년제 대학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02 수업연한

나. 4년제와 전문대의 수업연한

1)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직이수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통일

무전공 2학년 입학생, 특별편입과정 3학년 편입생을 고려하여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

2)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통일

3)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5차 학기 이상으로 기존 교육대학원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구성

02 수업연한

다. 전문대학 영유아교육학과를 4년제로 상향

1)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4년으로 상향

가) 간호학과 모델 적용

(1) 고등교육법의 전문대 간호학과 모델 적용: 2~3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4년제 운영 모델 검토 후 적용

(2)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와 심화전공 운영 사례: 심화전공 운영하여 4년제 가능, 아동관련학과 지원 필요

(3) 전문대 영유아교육학과 교직 과목 운영: 인근 대학 교직과정 학점교류 수강, 교내 간호학과 등 교직과정 공동 운영

2)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정원 유지, 증원

2~3년제 유아교육과 및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이 4년 상향됨에 따라 교원 추가 확보 필요

2~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될 때 학과 소속 중 학생수를 줄이지 않고 전환, 증원하는 방향 검토

03 영유아교사 추계에 따른 증원

가. 특별교원양성과정과 특별편입과정 운영

나. 지역별 수요에 따른 영유아교사 증원

0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시 우려되는 점

- 가.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 및 정원 감원
- 나. 영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직이수의 입시경쟁력 부족 현상, 사범대 총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 제외 필요
- 다. 지역수요에 적절한 영유아교사 양성의 필요성
- 라. 부족한 수도권 영유아교사 양성규모
- 마. 무전공(자유전공제) 도입
- 바. 대규모 정원의 영유아교육(학)과 개설
- 사.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 영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우려
- 아. 영유아교원 양성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가. 영유아교육과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

사범대 총 정원제에서 영유아교육과를 제외하여 정원 조정 필요

사범대 영유아교육과의 사범대 안에서 발전방향 모색

나. 1대학 1캠퍼스 1단과대학 통합학과 원칙

동일 대학 안에서 영유아교육(학)과가 같은 캠퍼스와 단과대학에 배치

사범대학이 있으면 사범대학에, 없으면 같은 단과대학에 배치 원칙

사범대 총 정원제 제외하여 통합 학과로 조정, 글로벌 사업 등으로 이후 통합되는 학교와 학과에 이 기준 적용

다. 2개 이상 학과의 영유아교육(학)과 통합

2027년부터 영유아교사 양성하려는 학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전승인 실시

대학에 2개 이상 영유아교사 양성 관련 학과가 있으면 통합이 적절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라. 대규모 영유아교육(학)과 운영

통합 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금 제공이 필요, 재정지원이 필요 (예) 글로벌 대학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분반 기준 마련: 25명(6주기 교원양성역량진단 전공 평가 기준), 충분한 수의 교수 증원 필요

특별편입과정 운영 시 분반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고려

마. 영유아교육(학)과 입학시 무전공 제외

영유아교육(학)과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처럼 사범대학(사범계열)로 입학시 제외

영유아교직이수 운영하는 아동관련학과는 개별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무전공 운영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바. 특별편입과정 운영

2029년부터 특별편입과정 편입생이 졸업하여 통합 영유아교사로 배출, 2026년부터 특별편입과정 선발

특별편입과정 선발 인원은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정원의 50% 이내 대학 자율 결정

사. 영유아교직이수 교원자격 수여 비율 조정

1안. 폐지	2안. 현행 10% 이내 유지	3안. 30% 이내 부여	4안. 50% 이내 부여
--------	------------------	---------------	---------------

아. 교육대학원 증원

재교육과정의 정원을 양성과정 정원으로 이동, 교원 주계에 따라 증원 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 검토하면서 증원방식 결정

자. 대면중심 교육 강화

비대면교육 일부 or 전면 실시 양성과정은 대면교육 비율을 대폭 상향

05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

차. 영유아교원교육센터 운영: 영유아교육(학)과 지원 방안

학부 영유아교육(학)과 설치 & 교육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모두 운영할 때, 센터 지원(영유아교육(학)과 운영)

센터장: 영유아교육(학)과 교수 겸직, 조교 1명 별도 배치

지역 내 영유아교원 재교육 및 승급 과정 지원

영유아교원 연수 관련 업무 증가 예상되므로 업무담당자 추가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

카.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 과정 증원

학사학위 이상 전문성 갖춘 영유아교사 양성 위해 일부 대학 일부 정원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세계최고 영유아교원 전문성과 지역사회 맞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5년 학석사연계 과정 일부 도입

감사합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발표3]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연구책임자: 고영미(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공동연구원: 이미정(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신혜원(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임수진(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유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지영(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2024)의 주요 내용

- 통합교사의 자격: 1안) 0-5세 영유아교사
2안)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양성과정 :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선택
-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 10년 유예기간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2026 교원역량개발지원제 시행 교원의 자기 역량 진단 신설(가안)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10.2)

[자기역량진단 예시]

- 시·디지털 역량
- 혁신적 교수법 활용
- 학부모 소통
- 동료교원 협력
- 지속적 자기 개발
-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교원 전문성 기준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 개발 예정('25-'26)
-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향후 통합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향으로 참고함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 자격 개편(안)

현행	개편(안)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有)	<table border="1"> <tr> <td>자격 신청</td> <td rowspan="3">통합 교사 자격 취득</td> </tr> <tr> <td>특별교원양성과정^① 또는</td> </tr> <tr> <td>대학원) 신면입 과정^② 중선택</td> </tr> </table>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특별교원양성과정 ^① 또는	대학원) 신면입 과정 ^② 중선택
자격 신청		통합 교사 자격 취득			
특별교원양성과정 ^① 또는					
대학원) 신면입 과정 ^② 중선택					
유치원교사 자격(有), 보육교사 자격(無)					
유치원교사 자격(無), 보육교사 자격(有)					

<출처> 교육부(202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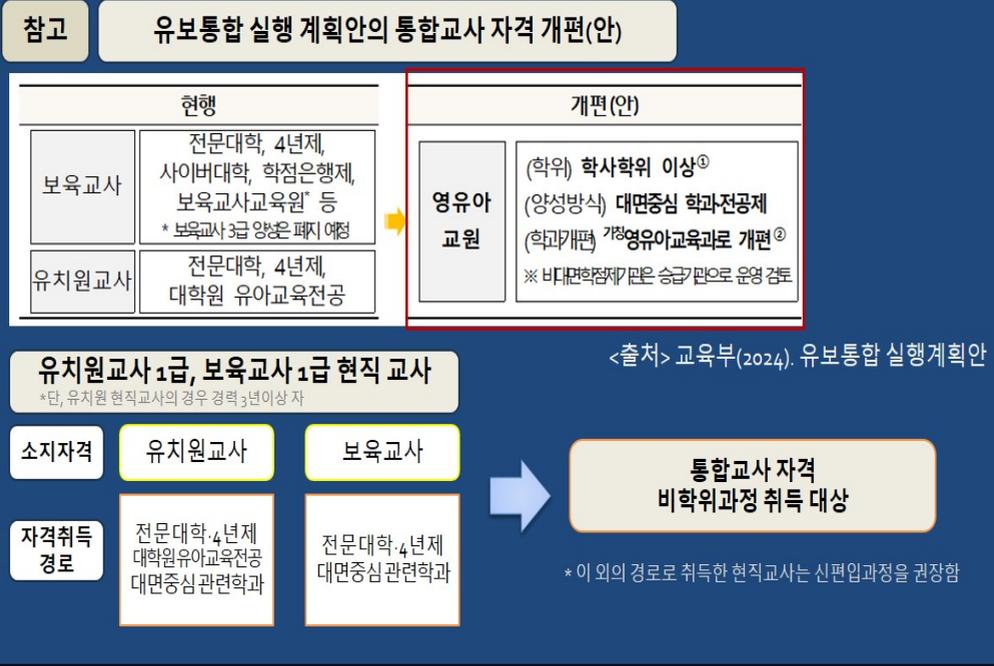
- 복수 자격 소지자 : 통합교사자격 신청 후 자격취득
- 단수 자격 소지자 중 통합교사 자격취득 대상 : 학위과정 or 비학위과정 중 선택

유치원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현직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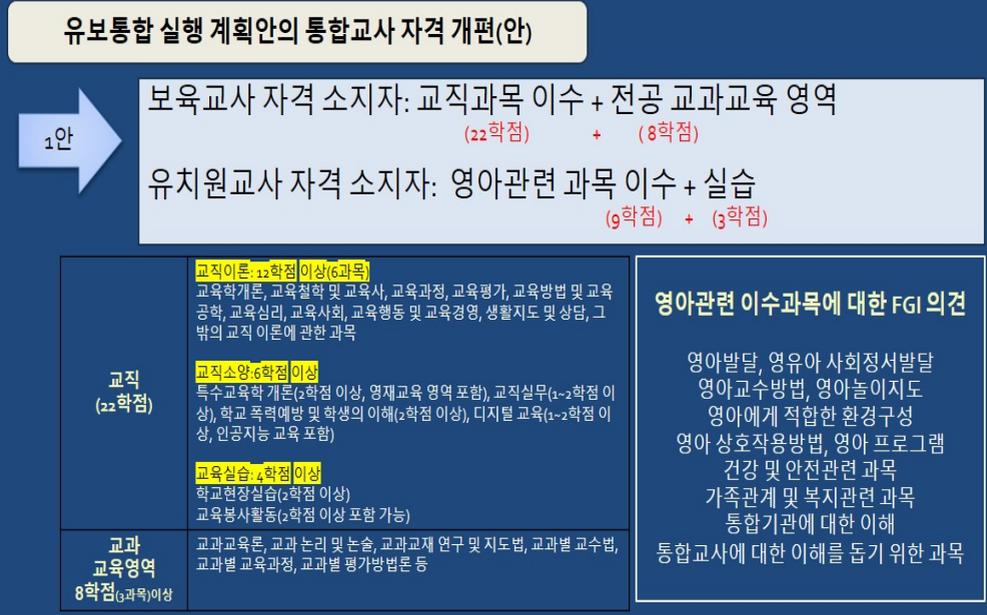
* 비학위과정은 현직교사의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단, 유치원 현직교사의 경우 경력 3년이상 자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대상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1안)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구성(2안)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 자격 개편(안)

2안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교직과목 이수
(22학점)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 영아관련 전공과목 이수 + 실습
(9학점) + (3학점)

교직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동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 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영아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FGI 의견

영아발달,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영아교수방법, 영아놀이지도
 영아에게 적합한 환경구성
 영아 상호작용방법, 영아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관련 과목
 가족관계 및 복지관련 과목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
 통합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

* 현직교사임을 고려하여 "실습" 을 인정 or 대체교과목 이수 논의 필요함

논의사항

-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사 양성과정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기관 선정의 기준이 중요함
- 현직교사의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하도록 대체 교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통합교사 자격의 취득 후, 영아반 담임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영아 교사 직무 교육 등 통합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 확충이 필요함
- 복수자격 소지자(유치원교사 &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자격연수과정 등을 통해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논의사항

- 통합교사 자격취득과정을 통한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교육과정 변경 및 전환을 위하여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학과)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감사합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가칭)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발표4]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연구

(가칭) 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 구성

연구진: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언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서윤희(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순배(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목 차

- I. 연구 배경
- II. 통합기관 원장(감)의 역량
- III.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 IV. 제언

I. 연구 배경

❖ 유보통합 추진, 0-5세 대상으로 한 통합기관 체계 마련

-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 양질의 차별 없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2023)

❖ 통합기관 원장(감)의 전문적 역량 발달시킬 자격과정 구성 필요

-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합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원장(감)의 역할수행 요구
- 통합 원장(감)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역량 중심의 전문성 강화 요구

➢ 이를 위해, 통합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며 (가칭) 영유아 학교 운영 역량을 강화시킬
전문적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요구

I.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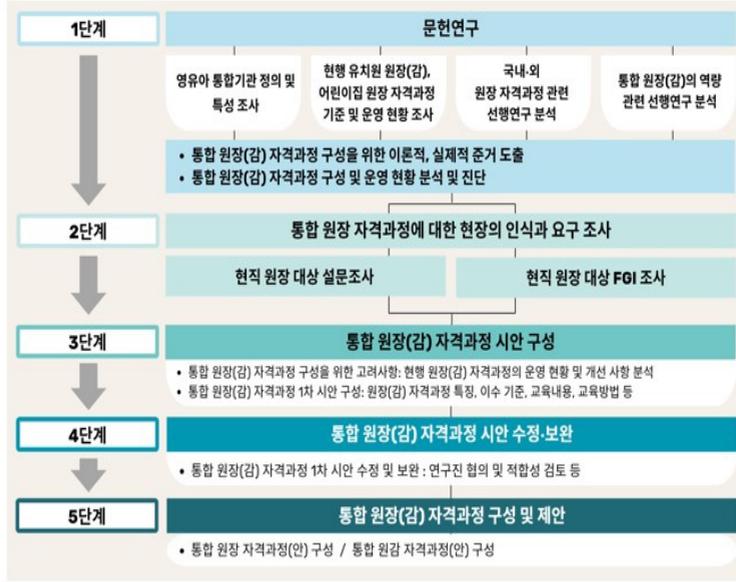
❖ 연구의 필요성

- 통합기관은 0-5세 영유아 성장을 지원하고 양질의 통합적 교육, 보육 실천을 목적으로 함
- 통합기관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을 운영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원장(감) 필요
- 현재 원장(감) 자격과정은 교육, 보육의 이원화 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자격과정의 이수 기준 및 운영 상이
- 통합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및 현직 원장(감) 자격과정을 구성·운영하도록 보완 필요

- ### ❖ 연구 목적
- 현재 시행 원장(감) 자격과정 현황을 탐색하고,
 - 통합기관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통합 원장(감)의 자격과정을 제안하고자 함

I. 연구 배경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통합기관 원장(감)의 역량

❖ 원장의 역량

-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기관 운영 제반을 관리하는 교육적·경영적 역량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인성, 소양 및 조직문화 구축을 유지하는 리더십 역량
- 원장의 인성, 소양에 따른 성찰과 리더십 **기본 역량**과 교육기획 등 전문지식과 기술, 조직 인사관리, 기관 경영 **전문 역량**
- 이외 교육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 원감의 역량

- 원장과 교사 간 중간관리자 역할 및 원장 직무 보좌 수행이 필요
 - 중간관리자, 지도자 교사 등 원감의 역할과 역량을 행정, 평등, 성찰적 리더 및 경영 관리와 협력적 관계 구축
- 성찰, 리더십 **기본 역량**과 교무운영, 교육지원, 업무 조정 및 갈등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경영 **전문 역량**

Ⅲ.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방안

1.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의 특성 및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운영 현황 분석
- ❖ 통합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을 위한 개선 사항 분석
 - **직급 체계와 자격 취득 기준의 개선 사항**
 - 일원화된 통합기관 교원 직급 체계 마련 필요
 - 통합기관의 원장(감) 자격 취득의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원장(감) 자격과정의 개선 사항**
 - 통합기관 원장(감) 자격과정 체계 마련 필요
 - 통합 원장(감)으로서의 직무를 지원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원장(감) 자격과정 구성 필요
 - **현행 원장(감) 자격과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반영을 위한 개선 사항**
 - 원장(감) 자격과정 내 반복적인 필수무교육, 중복되는 직무교육은 교과목 구성에서 제외하여 매년 별도 이수 제한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연계한 원장(감) 자격과정 제안

2. 통합 원장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장 자격 취득 대상

- (신규) 통합 원감 자격 취득자
- (현직) 유치원 원장 및 일반 어린이집 원장
 - 유치원 원장 :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9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유치원 교원 자격 소지자, 교육부장관 인정) 후 기관 임용예정 및 원장 자격연수 25일, 180시간 이상 이수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경력,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후 원장 사전직무교육 10일, 80시간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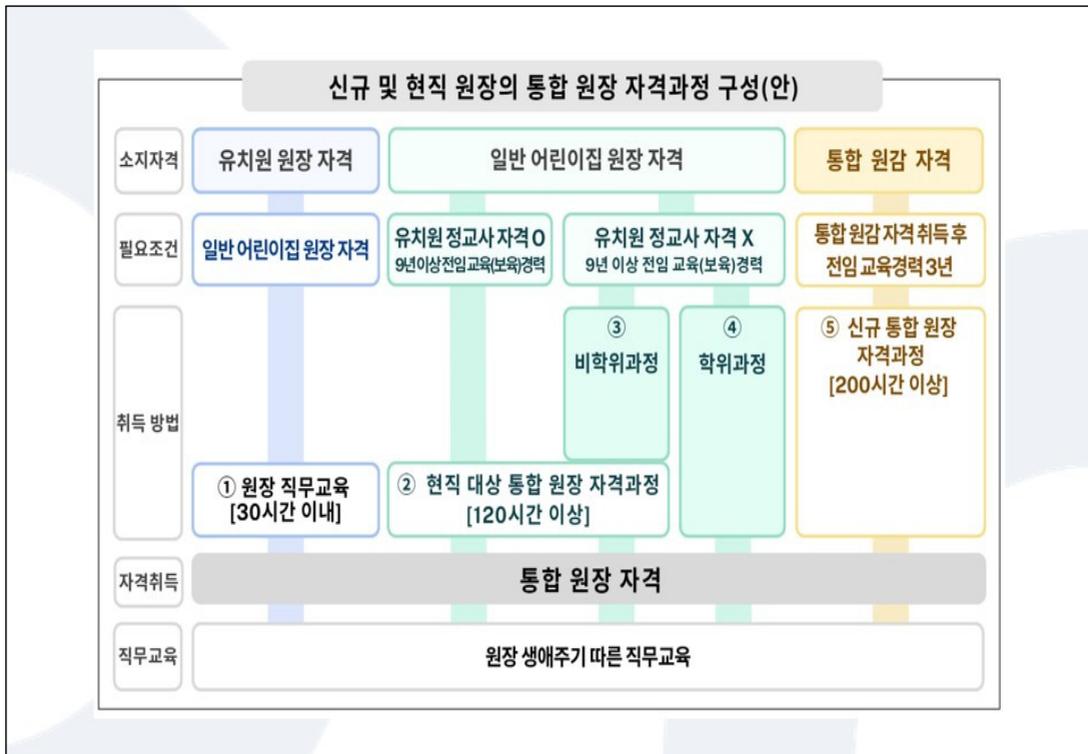
[참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원장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11조의2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7조 (자격의 검정) [별표7] '보수교육 실시기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장, 원감 자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2. 통합 원장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장 자격과정의 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통합 원장 자격과정				통합 원장 직무교육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신규		현직 일반 어린이집 원장		현직 유치원 원장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기간	이수시간	기간	이수시간	이수시간		
통합 원장	25일 이상	200시간 이상	15일 이상	120시간 이상	30시간 내외	30~50%	50~70%



3. 통합 원감 자격과정 구성 제안

❖ 통합 원감 자격 취득 대상

• (신규) 1급 통합 교사 자격 취득자

• (현직) 유치원 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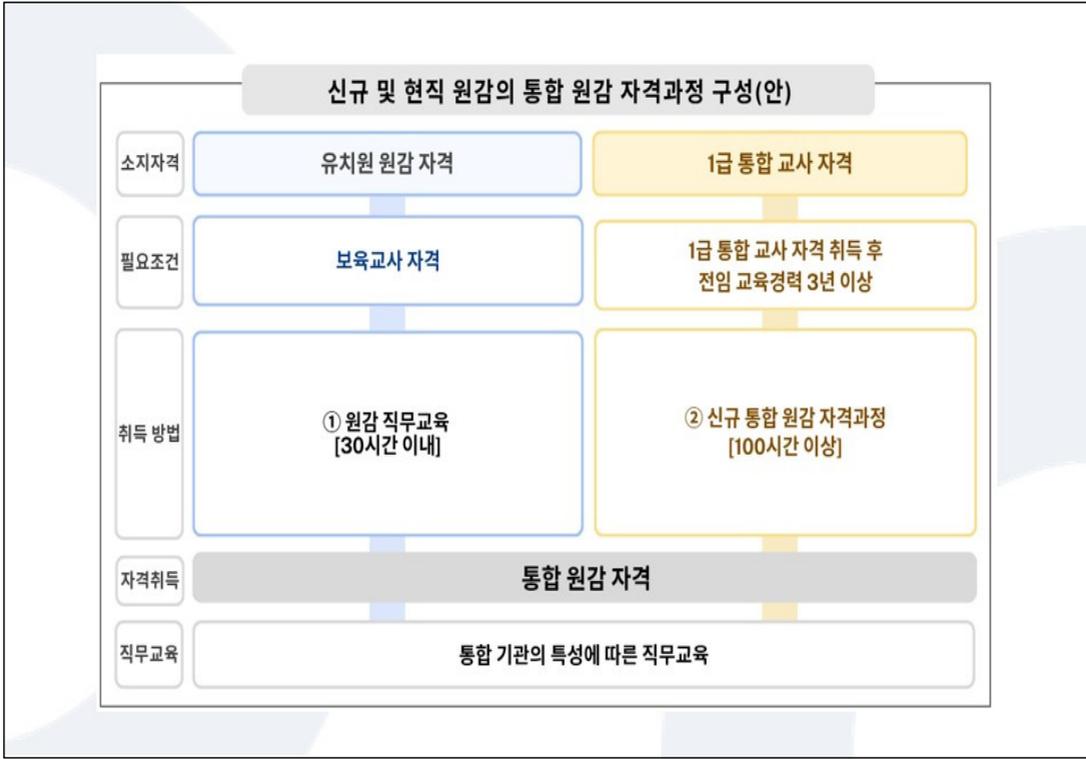
- 유치원 원감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경력 및 원감자격연수 15일, 90시간 이상 이수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교육경력 및 원감자격연수 15일, 90시간 이상 이수

[참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 원장, 원감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3. 통합 원감 자격과정 구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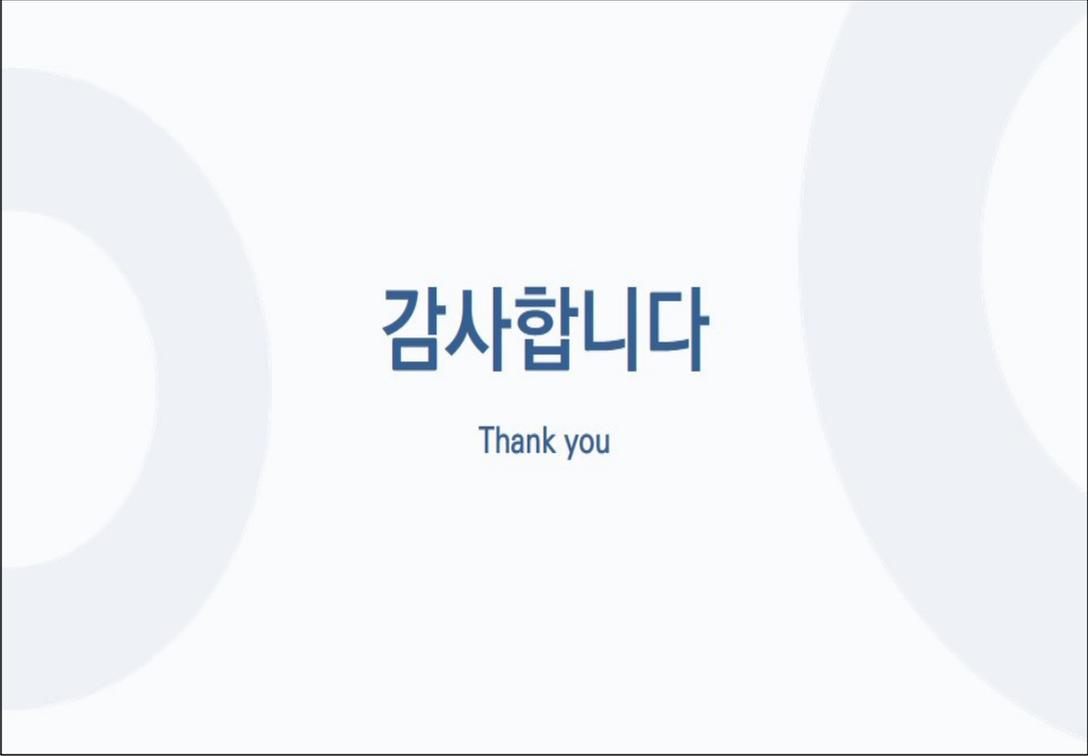
❖ 통합 원감 자격과정의 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통합 원감 자격과정		통합 원감 직무교육	총 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신규		현직 유치원 원감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기간	이수시간	이수시간		
원감	15일 이상	100시간 이상	30시간 내외	30~50%	50~70%



제언

- 통합기관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자격과정 지향
- 통합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반영하여 구성
- 현직 대상 원장(감) 자격과정의 유연한 운영 제안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연계한 원장(감) 자격과정 운영 제안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강원권)

지정토론

양진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보람 (대구대학교, 한국아동학회)

손옥경 (진영유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빛날 (오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김정화 (삼성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김언남 (뷰엔아이어린이집,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정지현 (학부모대표, 유보통합학부모연대)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방안』 토론문

양진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미래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개편은 단지 자격 요건 변경을 넘어,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개편안은 교사 자격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미래 교육 환경과 교사 역량을 고려한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번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포럼은 영유아기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본 토론자는 4개 주제 발표에 대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원과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발표 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은 첫째, 통합교사 자격은 영유아 발달의 연속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된 시스템 및 동일한 양성 요소와 조건 하에 연령 구분 없는 단일화된 양성체제로 0-5세 영유아를 위한 통합 교사 자격 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영유아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하고, 셋째,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되, 통합자격을 위한 기본 이수 과목과 학점을 표준화(예: 초·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취득 기준 적용 등)하여 통합자격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넷째,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 처우 개선, 재교육 기회 제공,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은 강조하였다.

발표 2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은 첫째, 유아교육과와 보육교사 양성학과를 영유아교육(학)과로 학과 명칭 및 자격 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영유아교사 양성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통일하여 학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셋째, 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교원양성과정 및 특별편입과정 운영을 제안하고, 넷째, 학과 개편에 따라 학과

폐지, 입시 경쟁력 약화, 지역별 수요 충족의 어려움 등 여러 우려 사항을 제기하였으며, 다섯째, 영유아교육과를 사범대 총정원제에서 제외 등을 포함하여 총 11가지의 학과 개편(안) 및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발표 3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은 첫째, 통합교사의 자격은 1안과 2안으로, 둘째,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양성과정은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중 선택할 수 있고,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 학사학위 이상,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영유아교육과로의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셋째,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개편안은 각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취득해야 할 학점 안과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은 10년의 유예기간을 제안하였다.

발표 4 <신규 및 현직 원장(감)의 통합자격 취득과정 구성(안)>은 첫째, 원장(감) 자격 취득 과정을 위해 소지 자격에 따라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 원장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원장 직무교육 30시간 이내를 이수해야 하며, 9년 이상의 전임교육(보육) 경력을 갖춘 일반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120시간의 자격과정을,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120시간의 비학위과정 혹은 학위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통합 원감 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전임교육 경력 3년을 충족하고, 200시간 이상의 신규 통합 원장 자격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토론회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원 135명을 대상으로 4가지 발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묻고, 이를 토대로 선정된 대표 관심 문제 다섯 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교육과정 개편) 교과교육학 영역 교직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과목 유지 + 내용 변경'이 4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교육의 실제,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변경은 25.93%, '현행과목 유지'는 18.52%, '새로운 과목명 필요'는 14.81%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통합 학과에서 신규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때 적절한 학과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육(학)과에서만 교원 양성'이 8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동관련학과와의 동시 양성은 14.81%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방안) 영유아교직이수(아동관련학과) 교원자격 수여 비율에 대해 어떤 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폐지'가 6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10% 이내'는 18.52%, '30% 이내'는 11.11%, '50% 이내'는

3.7%로 나타났다.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화된 영유아교사 통합자격 체계는 영유아교육(학)과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단독 자격으로 운영되어야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동관련학과의 분산된 자격취득 방식은 폐지 또는 전면 전환하여 교사 자격의 권위와 질적 수준을 높였을 때 진정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넷째,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 학점으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2학점(교직과목 이수) & 유치원교사 6학점(영아과목)’이 5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25학점(교직+전공) & 유치원교사 9학점(영아과목+실습)’ 22.22%, ‘보육교사 30학점(교직+전공) & 유치원교사 12학점(영아과목+실습)’ 18.52%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현직교사임을 고려하여 실습 대신 대체 교과목 이수하는 것, 기 이수과목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습 대신 대체 교과목 이수 O, 기 이수과목 인정 O’이 6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대신 대체 교과목 이수 X, 기 이수과목 인정 O’ 18.51%, ‘실습 대신 대체 교과목 이수 O, 기 이수과목 인정 X’ 3.70%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8명을 대상으로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 방안) 통합학과에서 신규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때 적절한 학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교육(학)과에서만 교원 양성’이 89.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로는 교사를 믿고 마음 편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높이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아교육 전문가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유보통합을 실현할 결정적인 순간이며, 영유아교사의 자질을 강화하고 그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높일 최적의 기회이다. 유보 이원화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는 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가 각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영유아교사 자격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자격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유보통합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고, 영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을 확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미래 영유아교육을 위한 질적 도약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폭넓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보통합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영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

이보람 (대구대학교,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체계에 관한 결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요소입니다. 영유아는 형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태도, 가치관, 신념, 그리고 기관의 문화 등을 내면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통합 시대를 맞아 영유아 교육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 1: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먼저, 0~5세 영유아교사로 통합 자격증을 도입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보육과 교육,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영유아기에 걸쳐 일관성 있는 교육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단일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교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교육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교사들이 모든 발달 단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자격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본 토론자는 여러 논의 가운데 교과 교육 영역의 교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급과 차이가 있으므로 교과 교육 영역의 교과목들을 조정하여 영유아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교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습은 단순히 교육 현장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연습하는 기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일과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중재, 다문화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기술, 발달이 다소 느린 아이를 위한 개별화된 접근법 등의 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제 2: 영유아교사 양성 체제 및 학과 개편 방안

학과 개편의 필요성은 영유아교사 양성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4년제 중심의 체계로 학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예비 교사가 영유아를 위한 이론, 실습 과목, 교직 과목, 그리고 교양 과목을 충분히 이수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본 토론자는 단일 학과 운영체제가 영유아교사의 포괄적이고 융합적 시각을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동 관련 다양한 학과에서 발급된 것은 교사가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교사 집단 내에서도 폭넓은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초중등 교원에게 다교과 전공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연계하여 융합전공을 추진하면서 교사양성 정책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 역시 복지, 발달, 상담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OECD, 2017; ACECQA, 2019). 따라서 ‘영유아교육학과’라는 단일 학과에서만 교사를 양성하거나 일부 학과에서만 경쟁적으로 교직 이수를 하게 만드는 개편 방향은 이러한 추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단일 학과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다양한 전공이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학, 발달심리학, 상담학, 특수교육학 등과의 연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교과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유아 교사가 더욱 다각적인 시각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제 3: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과정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자격의 인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와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가 추가로 이수해야 할 학점에 차이가 있어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교사 제도를 통해 동일한 교육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학점 이수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양성 과정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 자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체 교사 지원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연수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제 4: 영유아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 자격 취득 과정

영유아학교의 원장(감)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교육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통합 원장 자격 취득 과정은 기존의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적용, 리더십, 교육 행정의 이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장이 갖춰야 할 예산 관리, 교직원 간의 소통 능력 향상,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는 심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장은 조직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학교의 원장(감)자격 취득 과정은 앞서 언급한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존 자격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자격 취득 과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교사 및 원장의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처우 개선과 연수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개편을 통해 교사 간의 협력 강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심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유아가 일관성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2019). Early childhood teacher registration and qualifications. ACECQA. <https://www.acecqa.gov.au>
- OECD. (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276116-en>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

손옥경 (진영유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마련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지난 6월 2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소통의 창구로 마련된 이 자리에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자로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사전에 받은 4가지 발제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유아교육 전문성을 담보로 한, 영·유아교사 통합자격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문에서는 단일자격체제로 가야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안인 0~5세 영유아정교사 단일자격과 0~2세 영아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 이원화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다양하며, 각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제문 1] 중 통합교사 자격 관련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	--------------------------------	--	---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안 영유아정교사(0~5세) • 2안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무엇보다 교원자격 개편에 대해 현장과 소통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충분한 도입 기간의 설정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한 현행 기준 이상의 통합교사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체제의 달성과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사자격기준의 상향화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의 질 관리 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2. 교원양성, 대면기반의 교육과정 양성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개편에 대한 발제문을 보면, 방송/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온라인학점제 등을 배제하고, 4년제 학사과정 이상의 대면교육기관을 통한 양성체제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담보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원양성은 대면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양성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제문 2 중 수업연한 관련]

<p>02 수업연한</p> <p>나. 4년제와 전문대의 수업연한</p> <p>1)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직이수</p> <p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교사 양성학과와 수업연한은 모두 4년 이상으로 통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무전공 2학년 입학생, 특별편입과정 3학년 편입생을 고려하여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p> <p>2) 2~3년제 대학의 수업연한: 영유아교육학과, 아동관련학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교육학과와 아동관련학과 중 영유아교직이수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통일</p> <p>3)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p> <p style="text-align: center;">5차 학기 이상으로 기존 교육대학원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구성</p>

3.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 과정 충분한 설명

통합교사 자격 취득 관련하여,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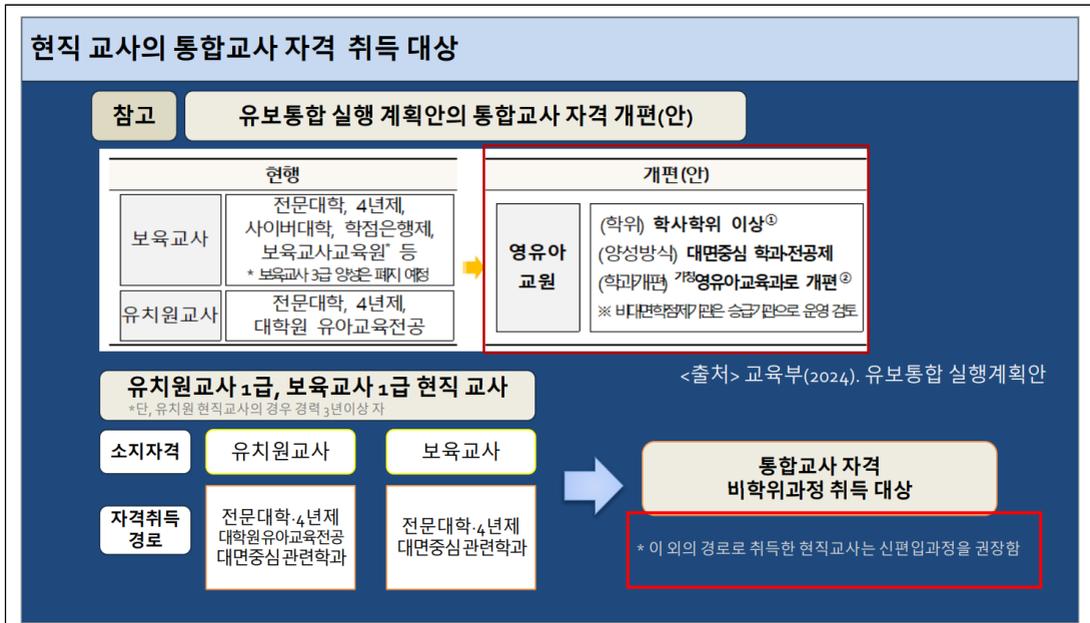
① 전문대·4년제대학·대학원의 유아/보육교사양성과정 외 원격대학 등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자 등 자격취득 경로에 상관없이 모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단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통합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② 교육부 시안에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통합교원자격 취득 대상이 ‘현직 교사’로 명시되어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교사가 아닌 (유치원,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도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게 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③ 특별교원양성과정 개설이 가능한 기관이 기존 교원양성과정 설치 대학(원)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원)과 원격대학까지로 대폭 확대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로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교육계 뿐만 팽배 및 통합자격을 취득하는 교원의 질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에 따라, 이같은 교육현장 우려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 필요시 “유보통합 관련 Q&A”나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같이 유보통합에 대해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안내가 필요합니다.

[발제문 3 중 통합교사 자격 관련]



특별교원양성과정이 자격취득만 하고 교육·보육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속칭 장롱면허소지자)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형태는 제고의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 3에 “이 외의 경로로 취득한 현직교사는 신편입과정을 ‘권장’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권장이 아닌 신·편입과정으로만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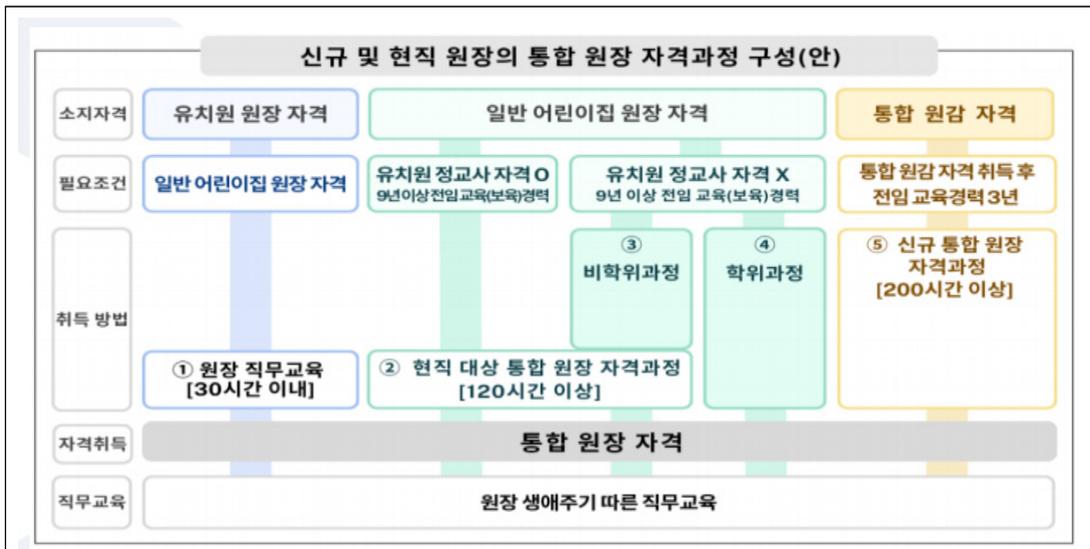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원자격만 유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유치원 형태의 유보통합기관(유아학교)에서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자격만 유지하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형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라 무조건 교사가 대폭 부족하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특별교원양성과정의 대상이나 기관을 무책임하게 늘리는 형태가 아닌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칫 특별교원양성과정 개설 기관의 확대나 통합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전환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지방대학 소멸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원장(감) 자격 과정 동등하게

원장(감) 자격 과정과 관련하여, 유치원 원장(감)의 경우는 발제와 같은 형태(30시간 내외 직무교육으로 통합자격 취득)에 찬성하나, 어린이집 원장이 통합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발제4 기준 : 15일/120시간 이상)은 현재 유치원 원감이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25일/180시간)과 동등한 형태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원감의 경우도 같은 원칙(15일/9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이 질적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 받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통합 교원이 기존의 유치원/보육교사의 질을 더욱 끌어올려 줄 정도의 과정으로 편성되어야, 교육수요자인 유아/학부모와 교육당사자인 교원 모두에게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에 대한 유치원 교사로서의 생각

김빛날 (오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지난 6월 2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대책 부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연말 유보통합 관련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목표라고 하였으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다. 이번 토론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토론회 참석을 위한 현장 교원 안내가 공개적이지 않고, 토론 시간이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참여하기 어려운 교사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최소한 온라인 참석을 위한 생중계조차 없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매일같이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교사양성체계 방안으로 1)0~5세 영유아교사로의 통합과 2)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나누는 2가지 안이 있다고 되어있으나 맨 앞 1, 2안이 적혀있는 단 두 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0~5세 통합영유아교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통합교사, 통합교원, 통합기관, 통합법, 통합교육과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부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연구, 면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논의한다고 하였으나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완전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제자, 토론자 모두 포함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의 토론회는 발제자 4명의 발표 모두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도권 토론회 때 현장 교원 99.9%가 현장의견수렴 부족이라는 설문 결과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로서 교사 자격체계를 완전통합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것은 첫째, 발달적 차이 때문이다. 영아와 유아는 발달적으로 차이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영유아교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을 들어 통합을 논하곤 한다. 그런 맥락에

서 보자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인간의 발달은 0~5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있어 연속선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나 발달적 차이, 학제에 따라 유, 초, 중, 고 자격을 분리하듯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영아는 영아에게 필요한 애착형성과 생존에 필요한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한 보육, 유아에게는 기초학습능력과 인성, 사회성의 형성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자격의 차이이다. 현재 유치원 정교사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을 거쳐야 하고,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등 비교적 단기간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영유아교사로 통합하며 현직교사들에게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준다는 것은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방법이다. 셋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 체계 차이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감 연수를 받는 데에도 2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경력 6년이면 어린이집 원장 연수를 듣고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연수로 통합 원감,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그동안 오랜시간 노력하고 연구하여 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일 것이다. 넷째, 현직교원의 재교육시 발생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만 있는 교원에게는 영아에 대한 교육을,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는 교원에게는 유아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수 많은 교사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영유아들을 교육, 보육 할 대체인력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변경 및 전환 등 대학(학과)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장의 주요 교육 당사자인 영유아와 부모, 교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경기교사노조에서 실시한 통합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전체 응답 2,127명 중 1,277명(60.2%)이 영아 정교사(0~2세), 유아 정교사(3~5세)로 자격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영아 정교사(0~2세), 유아 정교사(3~5세)로 자격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영아, 유아 교사 구분을 통해 교사는 첫째, 연령대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영아와 유아기는 발달 특성 및 교육적 요구가 다르다. 이를 반영하여 영아 교사는 기본적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 초기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 교사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 언어와 인지 발달을 돕는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영아와 유아는 필요로 하는 돌봄과 교육의 성격이 달라 교사의 업무도 차이가 크다. 교사 분리를 통해 업무가 세분화되면 교사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각 연령대에 맞춘 돌봄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에 맞춰 더 명확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과 교육 수준에 따라 특정 연령대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며, 건강한 자아와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등 향후 학습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에게는 맞춤형 돌봄, 유아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0~2세 영아전담인력 / 3~5세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고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돌봄전담인력 확보, 추가배치교사 법제화, 대체교사 확보 등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 수반될 때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말하는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보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자격 양성체계 개편 방안

김정화 (삼성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영유아 교육에 헌신하시는 동료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오랜 시간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저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통합 자격 과정 개편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개편이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하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존중받고, 더 나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통합 교사 자격 과정: 경험과 역량을 반영한 개선 필요성

유보통합 정책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교사 자격 과정**은 현장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0세부터 5세 영유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작용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이 통합 교사 자격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격 이수와 유예기간 및 교육 지원의 필요성

통합교사자격 과정에서의 보육교사는 교직 및 전공과목을, 유치원교사는 영아 관련 과목과 실습을 추가 이수하도록 설계되는 것에 동의하며 현직 교사들에게는 기존 자격을 유지

하며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이 부담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비용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통합 원장 자격 과정: 리더십과 운영 능력 강화

유보통합 시대에 맞춰 통합 원장 자격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통합기관의 원장은 영유아들의 안전과 성장을 보장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우르는 통합 원장 자격은 교육적 리더십과 운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쌓아 온 학부모, 교사, 영유아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경험은 통합 자격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리더십, 조직 관리, 교육 기획 역량을 포함한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현직 원장이 유치원 원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합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15년 이상의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원장은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비학위 과정이나 학위 과정이 아닌 통합연수를 통한 통합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제언: 현장 기반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자격 과정 운영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대체 교사 지원:** 통합 자격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실무 중심 교육:** 반복적이거나 중복된 직무 교육을 줄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유보통합 연수 강화:**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연수와 직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경력 인정 및 수당 개선:**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반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교직 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통합은 수용하되, 수당 역시 유치원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23%가 어린이집에서 3-5세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격 과정 개편이 모든 영유아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돌봄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현장에서 영유아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체계개편

김언남 (뷰엔아이어린이집,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30년 가까이 거론되었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원화 되었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유아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잘 정착되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만드는 첫 사회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만남입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영유아교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 - 유보통합실행 계획안의 통합교사자격 개편에서 보육교사는 22학점을 유치원교사는 실습포함 12학점을 이수해야지만 통합교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육교사들이 22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선정의 기준이 중요하지만 현직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아 22학점을 이수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들이 22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다 보면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인 질적인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 개선 목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합교사양성과정비학위 과정은 교사의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연차를 길게 주어 학점이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충분히 지원 해 주어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교사 자격에서 현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조항도 추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특징은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다년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해 3학점을 인정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처우 차이의 개선점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다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과 현직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아이들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 통합기관의 이해를 꾸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모든 교사가 연수를 받고 직무교육은 지금과 같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차별화된 연수로 통합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통합영유아교사 자격증이 준비된 교사에게는 경력을 인정하여 자격에 맞는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격을 갖추는데 현직교사에게는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면 교사들이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증에 대해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자격을 갖추어 교사들 간에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자격을 갖추었을 때 국공립과 법인, 민간의 교사 급여체계가 경력으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영유아 학교 신규 및 현직 원장, 원감의 통합 자격 취득 과정도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다른 제도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역간, 기관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조건에 따라 유아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모든 유아가 차별이 아닌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30년 동안 거론되었던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져 원아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유보통합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유보통합 및 교사 자격 통합에 기대하는 것

정지현 (학부모대표, 유보통합학부모연대)

교사/원장 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부모인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논의들이 오가는 것을 보며 유보통합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올해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내는 힘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만 2세, 만 3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영유아부모모임을 꾸리고 있습니다. 2개의 모임에서 매월 두 번씩 부모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고충과 걱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 철학과 태도, 양육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화들을 나누며 함께 성장과 변화를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인 나의 성장시절을 반추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조기교육 경쟁이 매해 과열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욕망과 불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시선, 그리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 등입니다.

더불어 영유아를 기르는 양육자로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달 단계에 맞게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축되는 것, △좋은 영유아 교육 기관을 언제 어디에서든 선택할 수 있는 것(교육과정의 구성과 질적인 담보, 교사 전문성, 기관장의 전문성과 운영철학) △경쟁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양육 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필요 등입니다.

이런 고민은 양육 현실에 부딪혔을 때 대다수 부모가 가지는 숙제이자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과 바램 위에서 네 분의 발제 자료를 살펴보고 오늘 일곱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0-5세 시기의 발달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0-5세를 대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게 영아 이해를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과 통합교육을 반영한 교과교육학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특히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와 유아기를 통합하여 발달과제를 잘 이해하여 개인차를 수용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0-5세 통합 교사 자격을 위해서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에 여러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교사의 일과 학습이 병행 가능하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교사들의 혼란 뿐 아니라 부모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의 경우, 현직교사임을 고려한 인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을 실습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번째 발제에서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에 10년 유예기간을 제안하셨는데, 유예기간만 둘 것이 아니라 현직교사의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통합교사 자격취득에 따른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직무 관련 대학원 졸업이나 주요 자격증 취득 시 일정 정도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 처우 개선과도 이어지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과목 편성에 한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에 따라 지역별로 소규모 학급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병설 유치원은 이미 만3세반, 만4세반이 4명, 5명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26만명대로 출생율이 떨어진 2021년생 아이들이 내년 2월에 가정어린이집을 졸업합니다. 소규모 학급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지역별로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연령

혼합반 구성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합반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닥쳐올 미래가 아니라 이제 당장 내일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이기에 혼합반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달이 느린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경계성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도 필요합니다. 또 이 아이들과의 통합 수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발제 자료에서 이름만으로는 어느 교과목에서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부모상담과 관련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아이의 발달사항과 가정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사이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 조기교육의 불안 속에 있는 부모들에게 놀이중심 아동중심 누리과정의 철학과 실제 수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유아 교육 기관의 철학을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합니다. 기관에서의 활동,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부모들이 이해하고 과도한 조기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도록 부모들을 돕는 일이 부모 상담의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기관의 철학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관의 교육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통합교사 자격 논의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안정적인 보상 체계와 교권 및 노동자로서의 권리보호가 담보되어야 영유아 교육기관의 운영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직업적 불안과 불만족은 질 낮은 교육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 사립 모두 앞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될텐데 이때 교사 처우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사립의 급여 격차가 너무 커서도 안되고, 초중등 교사처럼 국가에서 교사들의 급여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원장·원감 통합자격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활동과 방과후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이곳이 종합학원 같다고 느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한 기관의 입학설명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외부강사들이 들어오고, 수학 한글 학습지도 부족해서 심지어 스마트러닝을 도입했노라고 자랑하듯이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놀이 중심, 아동 중심의 누리과정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기관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누리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확보가 될까, 이 기관의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속으로 여러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은 몇 개의 특별활동을 하더라도 원장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기관은 교육자로서의 얼굴은 찾아볼 수 있고 끊임없이 나열하는 프로그램들 속에서 시들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괴롭기만 한 곳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쓸모없고 특별활동, 방과후 과정으로만 빼곡히 교육과정이 들어차 있다면 교사 전문성을 높이는 양성 과정을 설계하면 뭐하겠습니까. 원장원감 자격 연수, 통합자격 연수 다 좋습니다. 경영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자로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비전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 연수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유보통합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잘 경청해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영남 · 강원권

